

[10월 2주차] 산업AI 주간동향 보고

<26.10.8. 한국산업지능화협회>

구분	26/10/2주 산업AI 동향
산업AI 관련 국내 정책 동향	· 독자 기술력을 갖춘 앵커형 중견기업 육성 - 산업부,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(2026~2030)을 발표하고 1조원 규모 '데카코어 프로젝트'로 독자 기술·IP를 보유한 앵커형 중견기업 육성 - 산업현장 AI 모델을 발굴·확산하는 중견기업 M.AX를 본격 추진, 2030년까지 제조 원청 중견기업의 50%인 350여개사의 AI 전환 지원 · 서울에는 GPU, 지방에는 공장..AI가 벌리는 '산업 수도권 격차' - 산업부, AX 실증산단을 2030년까지 25개로 확대하고 MINI 얼라이언스로 산단 단위 AI 인프라·인력 공동 활용 추진, AI팩토리 500개 구축과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조성도 병행 - 울산·창원·구미 등 제조 거점은 비수도권에 분포하나 AI 인력·기업·컴퓨팅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며 'AI는 수도권, 제조는 지방'이라는 새로운 이중구조 우려 대두
글로벌 산업AI 동향	· 트럼프, AI '슈퍼인텔리전스' TF 출범...규제보다 산업 자율이 우선 - 美 백악관, '슈퍼인텔리전스(SI) 태스크포스'를 출범해 120일간 AI 기술 주도권 유지 방안과 해킹·국가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연방정부 역할 범위를 검토 - 오픈AI·엔트로픽·엔비디아 등이 합의한 자율규제 원칙을 중심축으로 유지하되, 과잉규제는 방지하면서 정부가 위험관리 체계 구축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방향으로 선회 · '美 두뇌 vs 中 육체'... 세계 공장 삼키는 '피지컬 AI' 대혈투 - 중국이 휴머노이드 출하 97% 등 로봇의 몸체를 장악한 반면, 미국은 엔비디아·구글 딥마인드의 AI 모델·반도체로 두뇌를 선점해 중국 로봇의 엔비디아 생태계 의존도 증가 - 미국은 테슬라·어질리티 등 자국 양산 기지 구축과 외국산 로봇 규제로, 중국은 체화지능 훈련장 데이터 통합과 특허 우위로 맞서며 피지컬 AI 경쟁이 국가 안보 총력전으로 확산

- 1) **독자 기술력을 갖춘 앵커형 중견기업 육성.** 26.10.1. 산업통상부 보도자료
- 2) **서울에는 GPU, 지방에는 공장..AI가 벌리는 '산업 수도권 격차'.** 26.10.6. 이투데이
- 3) **트럼프, AI '슈퍼인텔리전스' TF 출범...규제보다 산업 자율이 우선.** 26.10.5. 재경일보
- 4) **'美 두뇌 vs 中 육체'... 세계 공장 삼키는 '피지컬 AI' 대혈투.** 26.10.2. 브릿지경제